

지역 與 의원들 합구... 정치력 부재?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패배 원인에 대한 성찰과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민주당도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승리로 볼 수 없으며 호남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계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 지역구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또 여당 내 초선의원들의 활발한 움직임과도 대비된다.

15일 민병두, 박영선, 노현송, 신학용 의원 등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10명은 '5·31 민심수렴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을 내렸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당은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분열해 왔다"고 진단했고, 노현송 의원은 "입으로 개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14일 저녁 열린 우리당 임시지도부 워크숍에서는 지방선거 참패 원인에 대한 통렬한 자아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과 대안 제시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광주·전남지역 여당의원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여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이후 2~3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지 못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이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지만 외부로 분출하지는 못했다. 전남지역 여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이후 단 한번도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정치력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0여명이 15일 국회에서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분석과 민심수습 및 당의 진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당 차원 지방선거 참패원인 성찰등 활발한 진로모색 불구 "아직은 때가 아니다" 소극적 자세 일관...대안 제시 못해

다. 광주·전남지역이 참여정부 및 여당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도 지역 여당의원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형일(광주 동) 의원은 "지금은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다"며 "적절한 시점이 오면 광주·전남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은 "지금 호남지역 의원

들이 모여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며 "비대위가 구성된 만큼 좀 더 지켜보고 발언 및 행동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현역의원들은 한화갑 대표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계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6·15대축전' 남북 당국자 다양한 접촉...무슨 얘기 오갈까

북핵 등 남·북간 현안 포괄적 토론 기대

민간행사 한계...해결책 제시 가능성은 낮아

6·15 남북공동선언 여섯돌을 기념해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6·15민족 통일대축전'을 통해 남북 당국자 사이에 좌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접촉이 이뤄짐에 따라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이번 행사는 기본적으로 민간 행사에 당국이 참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 등 다른 남북 당국자 접촉에 비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지난 해 6·15나 8·15 당국 행사에서 목격됐던 오·만찬과 당국 공동행사, 참관 등을 통한 접촉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15일에는 새로운 형태의 당국 좌담회까지 시도되면서 나름대로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행사가 여기저기서 열리는 만큼 남북 단장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김영재 민족화해협력의화장을 비롯한 양측 당국자들이 차량을 함께 타 이동하며 "밀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어 보인다. 특히 합의를 위한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소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화제를

놓고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번 행사의 특징으로 꼽힌다.

우선 주목해야 할 대상은 양측 단장 간에 이뤄지는 대화로, 두 사람의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달 초 제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리긴 했지만 의제가 경험해 국한됐던 만큼 이 장관은 지난 4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 이후 한 달 간의 정세 변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의 판단과 입장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걸려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를 초청한 지난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 이후 각국의 움직임 등이 우리측의 설명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짙다.

아울러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거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이미 남북체널을 활용해 우려의 입장을 전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북핵에 대한 설득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

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달 합의하고도 북핵의 연기로 무산된 열차시험운행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대화가 사안에 따라 양측 단장 사이 보다는 북측 당국 대표단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최승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이 장관 사이의 접촉과정에서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다만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남북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은 이 장관의 입을 통하기 보다는 종전 DJ 남북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에 참가했던 관계자들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우리측에서 실무접촉에 참여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이 당국 대표단의 자문단과 대표로 각각 이번 행사에 참가한다. 북측에서도 실무접촉단 일부가 광주에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다양한 당국 간 대화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또 민감한 현안에 해당하는 미사일 발사 등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민주, 공동대표에 장상씨 선출

내년 2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 운영 일각선 '韓대표가 일방추진' 갈등도

민주당이 한화갑 대표와 장상(사진) 대표의 공동 대표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공동 대표체제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 전당대회가 열리는 내년 2월까지 공동 대표체제로 운영된다. 두 대표의 권한 배분은 한화갑, 장상 공동대표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권한은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한화갑 대표가 갖는다.

한화갑 대표는 "정당사상 남녀 공동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장상 선대위원장을 공동 대표를 선출한 것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우대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며 민주당이 역사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화갑 대표가 일방적으로 공동대표제를 밀어 부쳤다는 불만도 있어 내부 갈등은 잠복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북지사 후보로 뛰었던 정균환 전 의원을 부대표로 임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

"盧 탈당후 거국내각 구성되면 참여 용의"

한화갑 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거국내각이 구성된다면 민주당이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한화갑 대표는 지난 14일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노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며 "거국내각을 만들어 국민에게 호소하는 정치를 한다면 남은 임기동안 내리막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 당선 전에는 지역 감정 해소의 챔피언으로 인식됐던 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영남정서에 영합하는 지역주의자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 대표는 "정동영, 신기남, 정동채, 장영달,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 분당의 주역은 전라도 사람들이었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임동욱기자 tuim@

한반도에 밀려드는 '미사일 먹구름'

발사임박 보도에 한·미 긴장 고조 발사 땀 6자·남북협력사업 등 차질

한반도에 '미사일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 추정)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더니 한국과 미국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경고하고 나서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 미사일 발사하나=지난달 19일 일본 언론들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징후를 보도할 때만해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설마 쓸까"에 가까웠다.

하지만 미 행정부 관리들이 이번 주들어 "북한이 다음 주말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수 있는 징후들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발언을 하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어두워졌다. 특히 1998년 북한이 온갖 경고를 무시하고 대포동 1호를 발사했다는 점이 이번에도 '발사' 쪽에 무게를 더 실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협력사업에 미치는 영향=우리 정부가 가장 노심초사하는 대목이다. 북한 핵이나 미사일 문제가 국제적 현안인 동시에 남북 문제일 수 밖에 없고 현재 진행중인 남북협력사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사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일단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 한반도 정세구도를 일거에 바꾸는 중대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의 가닥은 '민간차원의 협력사업과 정부간 교류사업을 분리하자'는 쪽으로 잡혀가는 듯하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임격히 말해 민간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나 기업이 주도하는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등은 제재구면에서도 '허용되는 쪽'에 포함될 수 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광주외국어학원 첫! 개강 (6월22일7월 3일)
Table with columns for course type, level, and fees.
광주외국어학원
문의: 02-2778-1600, 1600-4788, 02-2778-4119

서경빌딩 임대
Table with columns for building name, location, and rental details.
서경빌딩 임대
문의: 02-2778-1600, 1600-4788, 02-2778-4119